

흔들리는 중도층·총청 표심을 잡아라

야 주자들, 반기문 퇴장에 보수성향 중도층 공략 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반 전 총장의 지지세력 일부인 중도층 공략에 본격 나설 태세다.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이 보수에서 보수성향의 중도층까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이 표심을 흡수할 경우 야권으로 무게추가 기울은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 중도층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을 굳힐 수 있고, 후보주자들에게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손학규 국민권익위원회 의장 등 제3세대 정치세력 형성을 추진하는 인사들 역시 반 전 총장을 지지한 중도세력을 잡아 야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대결'이라는 메시지를 한결같이 내뱉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누가 더 '바람직한' 정권교체인지, 누가 더 콘텐츠가 풍부한 후보인지를 겨뤄보자는 것이다.

반 전 후 선보인 '양산구상'에서 통합형 대통령을 강조한 것도 그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의 하차 이후 이런 전략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 전 총장의 불출마를 계기로 보수층이 결집할 경우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중도 표심을 끌어안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그동안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쳐온 반 전 총장의 하차로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 전 총장 외에 '중도층'을 대변할 가장 확실한 카드가 아니냐는 점을 내세우며는 전략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은 정치적 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대결'이라는 메시지를 한결같이 내뱉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누가 더 '바람직한' 정권교체인지, 누가 더 콘텐츠가 풍부한 후보인지를 겨뤄보자는 것이다.

손학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장과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 제3세대를 모색하는 세력들 역시 반 전 총장 지지층을 끌어들이야 하는 입장이다. 양측은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1일 만찬 회동을 하며 개혁세력을 규합하는 데 힘을 모으고 함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반 전 총장의 중도하차 후 이들이 중도·보수를 아우를 대안세력을 자처하면서 활동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반 전 총장의 하차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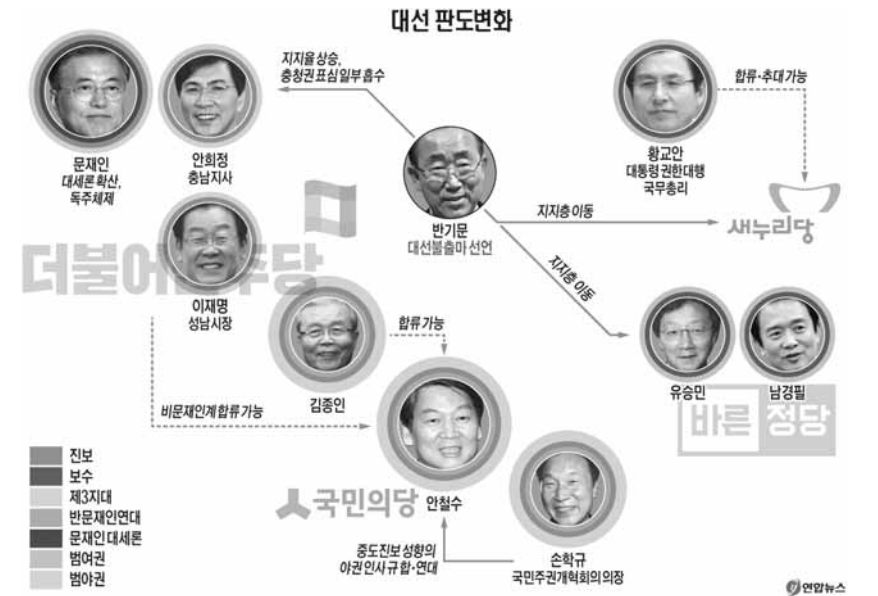
이 시장 측 관계자는 2일 "반 전 총장이

라는 여론의 강력한 주자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안감으로 대세론을 따랐던 야권 지지성향 유권자의 심리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누구로의 정권교체가 더 훌륭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 측은 중도 공략보다는 본인의 강점인 '선명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지사의 경우 '총청 대량론'의 대권주자를 자처하면서 반 전 총장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반 전 총장을 향했던 중도층으로부터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 측의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대 수혜자는 황교안...20.4% 흡수

반기문 이탈표 어디로...안희정·안철수·유승민도 상승



범여권의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렸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전격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흡수해 차기 대선 정국에서 수혜를 누릴 대선 주자가 누구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사퇴 이후 진행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황 권한대행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가장 많이 흡수했고, 같은 충청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상당 부분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도 일정 부분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흡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와 MBN이 지난 1일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직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8%) 결과 문 전 대표(26.1%)에 이어 황 대행(12.1%)이 뒤를 이었다.

이후 안희정 지사(11.1%), 이재명 시장(9.9%), 안철수 전 대표(9.3%), 유승민 의원(4.3%), 남경필 지사(2.0%) 순이었다.

이전 조사를 지난날 23~24일 MBN·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2%)와 비교 분석하면 황 대행의 지지율은 4.7%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1.4%포인트, 유승민 의원은 1.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32.8%에서 26.1%로 6.7%포인트 하락했고, 이재명 시장은 9.5%에서 9.9%로 소폭(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안희정 지사는 6.4%에서 11.1%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 전 대표에게는 11.1%, 유승민 바

른정당 의원에게는 10.9%, 안 전 대표에게는 9.1%, 안 지사에게는 7.6%의 지지자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JTBC가 같은 날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8%) 결과 문 전 대표(26.1%)에 이어 황 대행(12.1%)이 뒤를 이었다.

이후 안희정 지사(11.1%), 이재명 시장(9.9%), 안철수 전 대표(9.3%), 유승민 의원(4.3%), 남경필 지사(2.0%) 순이었다.

이전 조사를 지난날 23~24일 MBN·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2%)와 비교 분석하면 황 대행의 지지율은 4.7%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1.4%포인트, 유승민 의원은 1.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32.8%에서 26.1%로 6.7%포인트 하락했고, 이재명 시장은 9.5%에서 9.9%로 소폭(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안희정 지사는 6.4%에서 11.1%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 전 대표에게는 11.1%, 유승민 바

‘潘’ 떠나니 ‘黃’ 띄우는 새누리

보수 후보 공백 메우기...황대행, 바른 일정 대선주자급 정보

새누리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2일 '황교안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주자급 광복행보'를 했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에 따른 보수 진영 후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새누리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을 대체자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 추이, 국민의 요구, 권력지 등 '3박자'가 갖춰지면 황 권한대행이 우리 당의 유력 후보"라고 말했다.

변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일단 탄핵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황 권한대행은 정치적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부담감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드러내놓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전까지는 물밑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탄핵 기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5개 일정을 소화하며 거침 없는 대선주자급 행보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2일 오전 8시30분에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인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국회로 가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또 오후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지난해 12월에 위촉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제4기 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황 권한대행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와 관련,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의 출석과 답변을 요청하신 데 대해 제고해주시 것을 요청드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황 대행-하태경 어색한 인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다른 후보·정당 도울 생각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대선 불출마 선언 후 그동안 자신을 도운 측근들과 마포 사무실 주변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귀갓길에 “다른 분, 다른 정파나 정당에 힘 실어준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술도 걸음인 만찬을 한

후 밤 늦게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귀가하는 중 사당동 자택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다른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점 임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임점 매 20억원 (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임점 매 5억5천 (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 (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 (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 8억원 (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융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융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됨, 기마크롬, 서암은열름기, 아류뵐,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융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융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융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